

鬼神에 대한 《黃帝內經》의 입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교실
丁彰炫

I.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학의 기원을 살펴보면 모두 미신적인 질병관으로부터 비롯된다. 고대 원시인들은 대부분의 질병이 금기사항의 위반과 그같은 일들로 노여움을 산 악령·악마 혹은 신들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라고 믿었다.¹⁾ 따라서 그들의 질병치료방법 또한 귀신을 달래거나 침입한 악령을 몰아내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귀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모든 자연현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의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질병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치료법 또한 종교적이고 미신적 방법을 버리게 되었다.

고대 한의학 역시 그 기원을 따져보면 미신적인 질병관을 가진 “巫”의 治病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와같은 “巫”의 治病 활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합리적인 질병관을 가진 전문 의사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을 거쳤다.

한의학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종합이론서라고 알려져 있는 《黃帝內經》은 이와같은 질병관의 변천과정상에서 합리적인 질병관의 확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신적인 질병관과 합리적인 질병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 있어서 귀신의 역할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黃帝內經》이 鬼神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 하고자 하며, 그 과정 속에서 《黃帝內經》이 질병관 변천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II. 본론

1. 甲骨文의 기록을 통한 고찰-미신적인 질병관

고대의 원시종교와 몇몇 사상가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여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비록 소멸될지라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는 영혼불멸설을 믿었다. 이같은 고대의 귀신설이 지닌 관점은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육신을 벗어나게 되며 그것은 귀신으로 변하

1) 아커크네히트 지음, 허주 번역, 세계의학의 역사, 민영사, 1993. 36쪽

여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관념이다.²⁾ 墨子が 鬼神의 존재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생겨난 이후로 이미 鬼神의 형상을 보고 鬼神의 소리를 들은 자가 있으니 어찌 鬼神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³⁾라 하여, 鬼神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그 예로 周宣王, 鄭穆公, 燕簡公 등의 일화와 《周書·大雅》의 “文王(의 靈魂)이 위에 계시니 아아, 하늘에 빛나시는구나. ……”⁴⁾, 《商書》의 “山川鬼神” 등을 들었다. 또 그는 “옛날이나 지금의 鬼神이 다른 것이 아니어서 하늘 鬼神이 있고 山水鬼神도 있으며 사람이 죽어서 된 鬼神도 있다.”⁵⁾라 하여, 鬼神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山川에도 있고 또 사람이 죽어서 된 鬼神도 있다고 했다. 이는 곧 우주 만물에 모두 鬼神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고대인들은 자연재해를 鬼神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보았는데, 갑골문에 “어떤 鬼神이 해를 끼쳐 수재가 발생할 것이다(佳鬼, 佳水).”⁶⁾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일을 鬼神으로 조화로 여겼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질병의 원인을 鬼神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려 했다. 아래의 기록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貞：疾齒，午卩于父乙？(점을 쳐서 묻습니다：치아에 질병이 생겼는데，午卩을 써서 父乙(武丁의 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려서 보우를 구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貞：疾止，午卩于妣己？(점을 쳐서 묻습니다：다

리에 병이 생겼는데 午卩을 써서 妣己(武丁의 할아버지대의 왕비)에게 제사를 드려 보우를 구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甲骨文의 記載에 의하면, 질병의 대부분이 先祖 때문이라고 했다. 즉 先祖에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선조가 내린 一種의 懲罰이므로 治療方法도 祈禱와 祭祀로써 先祖에게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⁸⁾. 이러한 질병관은 《墨子》에도 보이는데, 墨子は 《墨子·天志 中》에서 “천자가 좋은 일을 하면 하늘은 반드시 상을 준다. 천자가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은 반드시 벌한다. 천자는 질병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욕제제하고 술과 곡식을 깨끗하게 차려놓고 天鬼에게 제사한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이것을 없애준다.”고 하여, 질병이 천벌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다.⁹⁾

2. 《五十二病方》을 통한 고찰 - 과도적 단계

이러한 인식은 전국시대 이후 자연과학의 발달과 여러 학문의 발달로 天이나 神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고, 또 인간의 스스로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차 鬼神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예컨대, 荀子は 《荀子·天論》에서 “하늘의 운행은 떼떽함이 있어서 堯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桀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다.”¹⁰⁾, “하늘과 땅이 합함에 만물이 생겨나고 陰과 陽이 만남

2) 周桂鈺 지음, 문재곤 외 옮김, 강좌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3. 246쪽

3) 自古以及今, 生民以來者, 亦有嘗見鬼神之物, 聞鬼神之聲, 則鬼神何謂無乎(漢文大系14, 墨子問詁, 권8, 明鬼下, 3~4쪽, 富山房發行, 1984. 增補版第二刷)

4) 文王在上, 於昭于天. ……

5) 古之今之爲鬼, 非他也. 有天鬼, 亦有山水鬼神者, 亦有人死而爲鬼者.(안의 책, 28쪽)

6) 심재훈 역음, 甲骨文, 1990. 240쪽

7) 안의 책, 302쪽

8)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14쪽

9) 가노우 요시미즈, 중국의학과 철학, 여강출판사, 1992. 87쪽 참고

10) 天行有常, 不爲堯存, 不爲桀亡.(漢文大系15. 荀子, 卷五, 天論, 21쪽)

에 변화가 일어난다.”¹¹⁾라 하여, 天地自然의 변화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가 바로 陰陽이라고 했다. 또 管子는 《管子·樞言》에서 “하늘은 때로써 부리고, 땅은 재료로써 부리고, 사람은 덕으로써 부리고, 귀신은 조짐으로써 부리고, 禽獸는 힘으로써 부린다.”¹²⁾라 하여, 비록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였지만, 《管子·輕重丁》에서 다시 “지혜로운 사람은 귀신을 부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귀신을 따른다.”¹³⁾라고 하여, 그것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생각하라, 생각하여도 얻지 못하면 귀신이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귀신의 힘이 아니고 정기의 지극한 것이다.”¹⁴⁾라 하여, 길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귀신의 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精氣를 한 곳으로 집중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들은 모두 天地自然의 변화현상이 귀신의 조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氣의 陰陽運動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귀신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의 변화는 의학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마왕퇴 백서 중 《五十二病方》을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五十二病方》에는 주술적인 요법과 동시에 약물치료요법이 제시되어 있고 아울러 합리적인 병리해석이 서술되어 있다. 예컨대, 〈嬰兒瘰〉條의 “祝之日噴者劇噴, 上○○○○○……”¹⁵⁾, 〈巢者〉條의 “祝之日東方之王, 西方○○○○主冥冥人星”¹⁶⁾, 〈魘

條의 “祝日漬者魘父魘母, ……”¹⁷⁾ 등은 모두 주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이 방법은 《五十二病方》에 수록된 대부분의 질병에 사용되고 있다. 약물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五十二病方》에서 사용한 醫方은 283개이며, 약물의 총수는 247개로¹⁸⁾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적음 약물과 사용법을 기술하였다. 사용법에 있어서도 內服, 外敷, 洗浴, 薰蒸, 溫熨 등¹⁹⁾ 다양한 방법이 보인다. 《五十二病方》은 치료법 뿐만이 아니라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嬰兒素瘰〉條에서 “嬰兒의 瘰病은 태어날 때에 습지에 거처한 것이 오래된 때문이다.”²⁰⁾라고 하여, 嬰兒의 瘰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였다. 또 《五十二病方》은 몇가지 질병에 대해 병증의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예를 들면 淋病을 血淋, 石淋, 膏淋, 女子淋 등으로 분류하였고²¹⁾, 痔疾도 脈者, 牡痔, 牝痔, 血痔, 胸癢 등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²²⁾

이상을 종합해 보면, 《五十二病方》에 나타난 치료법은 대부분이 약물요법과 주술적 요법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약물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²³⁾ 이는 곧 여전히 과거의 원시 주술적인 질병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특징은 《五十二病方》 중 “하늘의 神이 내려와 인간의 疾病에 간섭한다.”²⁴⁾라고 한 것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에 약물을 사용한 것이나

11) 天地合而萬物生, 陰陽接而變化起.
12) 天以時使, 地以材使, 人以德使, 鬼神以祥使, 禽獸以力使 (漢文大系21, 管子纂註, 卷四, 樞言, 20쪽)
13) 智者役使鬼神, 而愚者信之. (漢文大系21, 管子纂註, 卷二十四, 輕重丁, 第八十三, 20쪽, 中國哲學史便覽, 앞의 책, 64쪽, 재인용)
14) 故曰思之, 思之不得, 鬼神教之, 非鬼神之力也. 其精氣之極也. (漢文大系21, 管子纂註, 卷十三, 心術下, 第三十七, 9~10쪽)
15) 馬王堆醫書考注, 周一謀·蕭佐桃 主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75쪽

16) 앞의 책 81쪽
17) 앞의 책, 222쪽
18) 앞의 책, 49쪽
19) 앞의 책, 50쪽, 153쪽 참조
20) “素瘰者, 如產時居濕之久”(앞의 책, 71쪽)
21) 앞의 책 132쪽
《五十二病方》原文에는 淋字が □字로 되어 있다.
22) 앞의 책, 167쪽
23) 앞의 책, 104쪽 참조
24) 天神下干疾 (앞의 책, 140쪽)

內服, 外敷, 按摩, 洗浴, 薰蒸 등 증상에 알맞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 것, 특히 일부 질병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병증 분류를 시도한 것은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미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五十二病方》이 저술된 시기의 의학적인 상황은 이전의 미신적인 질병관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합리적인 질병관으로 이행하는 과도적 단계에 처해 있었으며, 이는 곧 의학의 영역에서 귀신의 작용을 배제하기 시작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는 《黃帝內經》에 이르러 의학영역에서 귀신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3. 《黃帝內經》의 입장-귀신을 배제한 합리적 질병관의 확립

《五十二病方》에는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점으로 질병을 바라보려고 노력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 즉 精氣說이나 陰陽論이 도입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內經》에 이르러서는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귀신의 역할을 철저히 부정하고, 氣의 운동과 陰陽五行論을 응용하였다. 이는 모든 자연현상을 기의 음양운동으로 해석하였던 당시의 사상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 질병에 미치는 귀신의 영향을 부정

《素問·寶命全形論》에서 “만약 무릇 하늘을 본 받고 땅을 법칙으로 삼아 天地의 변화에 따라 응하여 치료를 시행한다면 화답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으며 따르는 것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니 道를 행함에 귀신이 없어서 홀로 오고 홀로 갑니다.”²⁵⁾이라 하여,

천지자연에는 원래 스스로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운동변화한다고 인식했다. 여기서의 道는 陰陽의 道를 말한 것이며, 獨來獨往은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함을 말한 것이니, 天地自然의 변화가 鬼神의 조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往來進退하는 陰陽運動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다. 《素問·五藏別論》에서도 “귀신에 얽매인 사람과는 더불어 지극한 덕을 말할 수 없다.”²⁶⁾이라 하여, 질병의 원인을 귀신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주술이나 제사 등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려는 환자와는 의학의 지극한 이치와 그 효험을 더불어 論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귀신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고대의 원시적인 질병관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張介賓도 《類經·藏象類》에서 “그러므로 귀신은 곧 天地의 靈일 따름이다. 災殃과 福에는 원인이 있으니 오직 사람이 스스로 지은 것이며, 天地는 사사로운데 없으니 귀신이 어찌 그것을 가릴 수 있겠는가? 저 이치에 어두운 사람은 귀신에 아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허망한 것을 숭상하고 실제에서 구하지 아니하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²⁷⁾라고 하여, 질병의 원인이 귀신의 조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靈樞·五變》에서 동시에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혹시 귀신의 조화가 아니냐는 黃帝의 의심섞인 질문에 대해, 小俞는 “무릇 하늘의 風邪는 백성을 사사로이 함이 없어 그 행함이 공평하고 정직하니, 犯하는 사람은 風邪를 얻고 피하는 사람은 위태로움이 없으니, 하늘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犯한 것이다.”²⁸⁾라고 하여, 그 원인이 다른데 있

25) 若夫法天地, 隨應而動, 和之者若響, 隨之者若影, 道無鬼神, 獨來獨往.

26) 拘於鬼神者, 不可與言至德.

27) 然則鬼神者即天地之靈耳. 禍福有因, 惟人自作, 天地無私. 鬼神焉得而蔽之. 彼昧理者, 不知鬼神不可媚, 而崇尚虛無, 不求實濟, 何益之有. (張介賓, 類經 上, 大星文化社, 1986. 61쪽)

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에 달린 것이라고 하였다. 즉 체질의 強弱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靈樞·賊風》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병이 걸리는 것은 귀신의 조화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황제의 물음에 대해, 岐伯은 “이 또한 이전에 침입했던 邪氣가 머물러 아직 발작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뜻에 싫어하는 바가 있거나 사모하는 바가 있어서 血氣가 안에서 어지러워지고 두 기운이 서로 부딪쳐서 생긴 것이다. 그 쫓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미약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므로 귀신이 하는 것 같다.”²⁹⁾라고 하여, 그 또한 귀신의 조화가 아니고 이미 침입해 있던 邪氣와 감정의 동요가 겹쳐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즉 이미 邪氣가 체내에 침입하여 잠복해 있었다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데, 그 병이 나타는 것이 아주 미약하여 눈이나 귀를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의 조화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內經》은 의학 내용에서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2) 祝由에 대한 합리적 해석

심지어는 “祝由”에 대해서조차도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漆浩에 의하면, 祝은 두가지 뜻으로 쓰였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을 기리어 찬양하는 말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입으로 귀신을 향해 주문을 외우면서 巫術을 행하는 것, 즉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³⁰⁾ 이로 볼 때, 祝由의 원래 의미는 귀신에 대한 祈禱나 呪文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미신적이며 종교적인 것이다. 《靈

樞·賊風》에서 黃帝가 祝由만으로 질병이 낫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에 대해 岐伯은 “옛날의 巫醫는 모든 병이 발생하는 이치를 알고 그 병이 쫓아서 생기는 원인을 먼저 아는 자여서 祝由만으로도 병을 그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³¹⁾라 하였고, 《素問·移精變氣論》에서는 “옛날에 병을 치료하는 것을 오직 精을 옮기고 氣를 변화시킬 따름이니 祝由만으로도 병을 그치게 할 수 있었다.”³²⁾라 하였다. 이는 분명 고대에 祝由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祝由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귀신을 언급하지 않고 그 합리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고대에 祝由를 시행했던 巫醫를 단순한 무당이나 주술사로 보지 않고 질병의 원인과 이치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나 祝由의 행위가 인체의 精氣를 변화시킨다고 한 것에 바로 祝由에 합리적인 면이 있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는 곧 祝由를 일종의 정신요법으로 昇華시킴으로써 祝由가 본래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內經》이 기본적으로 의학적 영역내에서 만큼은 결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內經》의 이러한 사상은 정신병의 해석이나 꿈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즉 《素問·陽明脈解》에서 미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는 부르는 등의 정신증상을 陽氣가 盛한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이나, 《靈樞·淫邪發夢》에서 여러 가지 꿈을 五行理論을 이용하여 해석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疫病의 原因에 대해

그런데, 《素問·刺法論》을 보면, “사람이 虛弱하면 곧 神氣가 떠돌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귀

28) 夫天之風者, 非以私百姓也, 其行公平正直, 犯者得之, 避者得無殆, 非求人而人自犯之.

29) 此亦有故邪留而未發, 因而志有所惡, 及有所慕, 血氣內亂, 兩氣相搏. 其所從來者微, 視之不見, 聽而不聞, 故似鬼神

30) 漆浩, 《醫, 巫與氣功》, 人民體育出版社, 1991. 중국. 12쪽

31) 先巫者, 因知百病之勝, 先知其病之所從生者, 可祝而已也.

32) 古之治病, 惟其移精變氣, 可祝由而已.

신으로 하여금 밖으로부터 침입하게 하니, 이는 일찍 죽음에 이르게 한다.”³³⁾라 하고, 또 “또 水運이 不及한 해를 만나 黃尸鬼가 침입하여 사람의 正氣를 해치고 사람의 정신을 빼앗으면 갑자기 죽게 된다.”³⁴⁾라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白尸鬼, 靑尸鬼, 黑尸鬼, 赤尸鬼 등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여, 마치 귀신을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한 듯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의 尸鬼나 鬼神 등은 전염성을 가진 邪氣를 말한 것으로, 특히 人體의 神氣가 虛했을 때 침입해 들어오는 일체의 邪氣를 말한 것이다. 이는 같은 편에서 “서로 감염되지 않은 자는 정기가 안에 남아 있어 邪氣가 침입하지 못해서 그 毒氣를 피한 것이다.”³⁵⁾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毒氣는 바로 전염병을 일으키는 邪氣로 앞의 尸鬼나 鬼神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밖에 위와 같은 질병을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針으로 치료하려 했다³⁶⁾는 점에서도 병의 원인을 실제로 귀신으로 인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서 邪氣를 尸鬼라 하고 또 鬼神이라 했을까? 그것은 그 병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고³⁷⁾, 또 언제 병이 든지도 모르게 드는 관계로 그 원인도 모르고 그 치료방법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尸鬼, 鬼神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비록 두 편이 《內經》의 다른 편에 비해 훨씬 늦게 저술되어 그 내용이 크게 다른 관계로, 대부분의 《內經》 研究家들이 이 두 편을 《內經》의 原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內經》이 陰陽五行의 법칙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鬼神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처럼 《內經》에서는 철저히 의학의 영역에서 귀신의 존재를 배제하였는데, 이 모두가 《內經》이 陰陽五行理論과 氣의 운동으로 천지만물의 변화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에서 연원한 것이다.

33) 人虛卻神遊失守位, 使鬼神外干, 是致天亡.

34) 又遇水運不及之年, 有黃尸鬼干犯人正氣, 吸人神魂, 致暴亡.

35) 不相染者, 正氣存內, 邪不可干, 避其毒氣.

36) 又遇水運不及之年, 有黃尸鬼干犯人正氣, 吸人神魂, 致暴亡 可刺足少陽之所過, 復刺腎俞.

37)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인민위생출판사, 1993. 1330쪽 참조

III. 결론

지금까지 갑골문에 나타난 기록과 《五十二病方》, 《黃帝內經》을 통해 각각의 귀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갑골문의 내용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질병의 발생이나 치료를 귀신에 연관지어 인식한 미신적 질병관에 해당하며, 《五十二病方》이 미신적인 질병관에서 합리적인 질병관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속하는 것이라면, 《黃帝內經》은 합리적인 질병관이 확립된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黃帝內經》은 질병에 미치는 귀신의 영향을 철저히 부정하고 질병을 氣의 운동과 陰陽五行論을 응용하여 해석하였으며, 심지어 祝由까지도 일종의 합리적 정신요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려 했다.

參 考 文 獻

- 가노우 요시미츠, 中國의학과 철학, 여강출판사, 1992.
- 馬王 堆醫書考注, 周一謨·蕭佐桃 主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 山東 中醫學院·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인민위생출판사, 1993.
- 심재훈 역음, 甲骨文, 1990. 240쪽
- 아커크네히트 지음, 허주 번역, 세계의학의 역사, 민영사, 1993.
- 張介 賓, 類經 上, 大星文化社, 1986. 61쪽
- 周桂 鈞 지음, 문재곤 외 옮김, 강좌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3.
- 漆浩, 《醫·巫與氣功》, 人民體育出版社, 1991. 중국.
- 漢文 大系14 墨子閒詁, 富山房發行, 1984. 增補版第二刷
- 漢文 大系15 荀子, 富山房發行, 1984. 增補版第二刷
- 漢文 大系21 管子纂詁, 富山房發行, 1984. 增補版第二刷
- 洪元 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 洪元 植,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5
- 洪元 植, 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1985